

주의 공현 대축일

제 1독서 : 이사 60, 1-6

제 2독서 : 에베 3, 2-3a, 5-6

복 음 : 마태 2, 1-12

순정이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향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 11)

강론

삶-공현의 장소

양재철 신부 / 서신동 천주교회

주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공현(公顯)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시(啓示)하고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오고 계시며(강생), 당신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십니다(공현). 그래서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자기 계시이고 공현이십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당신 친히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는 인간 아담에게 말을 건네시고 당신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당신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만남, 통교가 시작됐습니다. 아담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분은 자신을 아담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아담은 하느님의 사랑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 자신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자기 장막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며, 믿기지 않는 아들의 출생 안에 하느님의 계시와 사랑의 공현을 체험합니다. 모이세는 타오르는 덩불 속에서 하느님의 공현을 만나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같은 체험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구름기둥, 불기둥, 장막, 계약의 례, 성전 등은 하느님의 연속되는 강생, 사랑의 공현사건들입니다. 즉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표들입니다.

하느님의 강생(임마누엘)과 공현은 예수님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들 삶 안에 일어나야 하고 또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일상의 삶은 그분의 사랑이 다시 태어나는 장소요, 당신이 참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사,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사랑으로 계시며, 자신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만나십니다. 공현의 참뜻을 묵상하며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이 공현(사랑 체험)이 우리들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고 계속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소리

이름만 바꾸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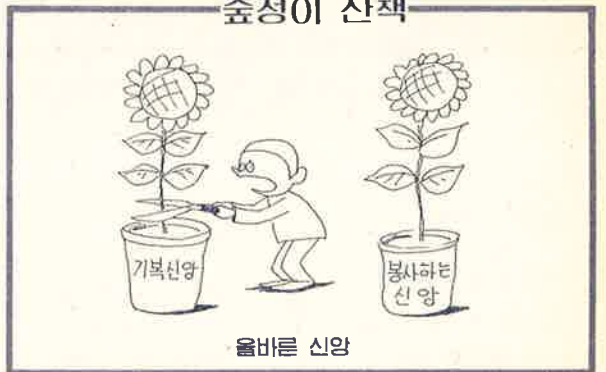
이름이란 ‘사람의 성(姓) 아래에 붙여, 그 사람만을 가리켜 부르는 일컬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컬음이다. 그래서 예부터 이름을 짓는 일에는 항렬자(行列字)를 고려하는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중함을 다하기 마련이다. 요즈음이야 순우리말로 짓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성명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도 많다.

그런데 그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씨와 이름을 합해 보면 부르기 뿐만 아니라 듣기에 거북한 이름들이 더러 있다. 그 동안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된 김치국(金治國)·나죽자(羅竹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올해에 국민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원하면 개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 기회에 그 범위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

이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과 구별 짓기 위하여 사물이나 단체에도 붙인다. 예를 들면, 기억하기에 구질구질한 ○○복집 같은 이름도 그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그 음식점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사를 했던 몇몇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니 딱하다 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회 등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다. ○○인은 뜨거운 맛을 보아야 한다고 망언을 서슴치 않았던 사람 등 말이다. 이들 이야말로 이 기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싶다. 우리 세례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자. 卍

순정이 산책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막연하게나마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깊은 체험이 부족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이에 교구장님께서서는 교황님께서 대희년(大禧年)으로 선포하신 2000년을 앞두고 제창하신 '새로운 복음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시대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사는 길밖에 없음을 간파하시고, '95년도 사목교서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로 정하였다.

사목교서의 내용을 보면 주교님께서서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성서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도달한 곳, 거기서 새로운 복음화의 목적지임을 밝히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슬픔을 뚫고, 희망과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이 우리의 사명임을 설교하셨다.

이미 배포해 드린 '95년도 교구장 사목교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우리도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새 삶의 기쁨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남'지 '95년 1월호에 게재된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소개한다.

복음 나누기 7단계

이 달의 말씀(예 : 루가 2, 15-21)

1. 주님을 초대한다.
 - 반원 중 한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한다.
2. 성서 본문을 읽는다.
 - 반원 중의 한 사람이 천천히 그리고 똑똑히 성서 본문을 읽는다.
 - 읽는중에 각자 성서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마음속에 새긴다.
 - 잠시(약 1분간) 각자가 정한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한다.
 - 다른 사람이 성서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는다.
 - 잠시 묵상
3. 각자 돌아가면서 본인이 선정한 구절이나 단어를 기도 하듯이, 천천히, 똑똑하게, 외치듯 한 번 말한 후 잠
- 간 멈추었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한다.
4. 반모임 주도자가 성서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또박또박 읽는다.
5. 침묵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한다.
 - "...분 동안 침묵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6.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 자신이 정한 구절이나 단어가 마음에 와 닿은 이유와 묵상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소박하게 돌아가면서 나눈다.
 - (다른 사람의 나눔에 대해 비판하거나 참견하지 않는다).
7.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 준비된 사람부터 돌아가며 오늘 반모임을 통해 느끼고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덕진유아놀이방

모집대상 : 0세~3세까지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돌봐드립니다

이 인 자(엘리사벳)

덕진 야구장 후문

☎ (0652)254-1598

사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사상건강회

금·은·보석·시계

다 이 아 나

· 결혼예물 우대, 개조직 환영

김 윤 종(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서도프라자 1층 104호

☎ 222-3274~5

마음에 새긴 다짐들을 모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자유롭게 바친다.

(각자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할 다짐들을 주님께 고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참가자 전원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한다).

* 말씀 나누기가 끝난 후 진행되는 각자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천할 계획들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짧은 시간을 가진다.

위에 소개한 말씀 나누기는 '95년 1월 한 달 동안 반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살도록 제시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모임의 성격이나 만나는 횟수에 따라 오늘의 말씀이나 주간의 말씀을 선정, 서로 느끼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실천하면 된다.

앞으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모임에서든 성서를 맨 첫 자리에 놓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자. 그러면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할 것이다.

교 구 소 식

1. 교구장 아시아 주교회의 참석: 1월10일~1월 19일 필리핀
2. 재무 평의회: 1월10일(화) 오전10시 교구청
3. 사목교서 연수: 1월15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대상-동전주, 서전주, 이리·익산지구, 본당 사목위원
4.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1월9일(월) 오후12시30분
5.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1월9일(월) 오후6시30분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6.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1월15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85-0041(홍보국) * 초보자 가능함
7. 신학교 입학 대상자 모임: 1월12일~14일 나바위 피정의 집
8. 세계 청소년 대회: 1월10일~15일 필리핀 마닐라
9. 여성 48차 푸르실료: 1월12일~15일 천호 피정의 집
10.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신년하례식): 1월9일(월)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교구내 모든 교우님들과 신부님들께 유럽에 살고 있는 전주교구 신부, 신학생 모두가 성탄과 새해 인사를 보내 왔습니다.

- **성소모임** 사랑의 씨튼수녀회: 1월15일 오후1시30분 동산동 성당 (0652) 212-3233
 가리따스 수녀회: 1월15일 오후2시 덕진 성당 (0652) 72-5304
 전교가르멜수녀회: 1월15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 74-926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공식품

가공식품을 살 때에는 식품 첨가물을 꼭 확인하고, 첨가물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은 절대 사지 않도록 합니다.

뉴턴/종로회원 시원모집

교우가정의 학습지 주문도 접수합니다. 지금 전화주시시오!
 (주문서 사은품 증정)
 • 문의처 회 사: 88-8027~8
 야 간: 291-0279
 호출기: 012-686-5675
 김 금 주(벨라도)

이 엠 학 원

<초·중·고>
 김 해 근(마티아)
 동아아파트 앞, 육교 옆
 ☎61-0909, 466-0909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호 자(삼천쌍용APT 앞) 221-8331

요십이 (1115) 김병오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주지사때 성희롱사건은...




임기 끝난후 재판한다고... 역시 선전국은 다르군!



우리나라 대통령이 관련된 1212 군사반란사건은 역사의 심판에 떠넘겼는데...



말만 세계화 하지 말고 이런것부터 세계화 합시다!



우편으로 하는 성서공부 시청각통신성서 신인생 모임
 신구약성서 입문(2년)
 ①구비서류: 입학원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반명함판사진2매 ②원서교부 및 접수: 매년 12월~1월20일 ③원서대: 3,000원 ④교부처: 전국 성바로 서원 및 본교우부 ⑤문의: (02)987-4004, (0652)252-3398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케,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폰소)
 ☎ 88-7717~8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주의 공현 대축일

1. 예비자 교리 안내: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일요일반-장엄미사 후
후 3시(중·고생)
· 수요일반-저녁미사 후
2. 세계 청소년 대회: 15일 필리핀 마닐라
중·고 교리교사 이인영(수산나) 참가
3.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③대건회(15일, 장엄미사 후)
4. 금주 청소: 중노17, 18반
차주 청소: 중노19, 20반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사목회 확대회의: 공식미사 후
참석대상-사목회 임원, 심신단체장, 반장
2. 성심회: 1월10일(화) 오전 10시30분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울뜨레아: 1월12일(목) 오후 6시30분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

1.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4. 해설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5. 안나회: 12일(목) 오전 10시
 6. 자모회: 12일(목) 오전 10시
 7. 성우회: 15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성당 청소: 14일(토) 황금궁전Pr. 성모성년Pr
금주 전례: 해설-형임순, 독서-정승훈 부부,
봉헌-오경희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신태섭 부부,
봉헌-유덕열 가족
- 성탄헌금: 1,311,390원 □ 교무금: 1,986,2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주의 공현 대축일

1. 금주: ①공식미사 주교님 집전
②신년하례식(공식미사 후)-사목임원, 제단체장 참석
바람
③자모회(전 10시) ④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⑤사목회(후 8시)
2. 사랑의 헌혈: 8일(오늘 9시 공식미사 후)-많은 참여바랍니다.
3. 남성 49차 꾸르실료 수료: 이완재(다두)신부님,
임낙홍(빅트르)
4. 사라회: 10일(화) 오전 11시
5. 나자렛회: 10일 오전 11시
6. 돈보스코회: 11일(수) 오후 7시30분
7. 구역반장 회의: 12일(목) 오전 11시
8. 다비드회: 14일(토) 오후 3시
9. 유아 세례: 14일 오후 3시, 신청 13일까지
10. 감사합니다: 성탄 장식헌금 50만원(사라회)
11. 예루살렘회 창립: 회장-이서광(엘리사벳) 부회장-백금옥(말가리다) 총무-김선애(안젤라) 서기-박순덕(안나) 감사-전영애(프란치스카) 김향숙(테레사)
12. 청년연합회 임원 개편: 회장-김용(라파엘) 부회장-송대건(대건안드레아) 총무-윤정희(아가다) 회계-김은희(젬마)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오늘은 주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1. 모임: 안나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2. 성가대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형제회: 10일(화)-서당, 내정, 공기, 백암, 어두, 선홍
11일(수)-수월, 하신, 상신, 원신, 색장, 의암
 4. 성탄 꽃봉헌: 이순자, 이석남-각 3만원. 서안나, 노연주-각 2만원
 5.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봉근-10만원, 황대호-5만원, 박귀철,
안복례-각 1만원, 누계-34만원
 6. 꾸르실료 여성 48차 교육: 12일(목)~15일(일)까지
김미남(루시아) 주영례(크리스티나) 자매님
 7. 사목교사 연수회: 15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8. 금주 청소: 황금의 궁전Pr.
 9. 차주 청소: 순교자의 모후Pr.
 10.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주영례
봉헌-이정우씨 부부
 12.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옥 ②이석남
봉헌-김종석씨 부부
- 성탄절 감사헌금: 1,192,770원 □ 성탄절 헌금: 436,8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황금, 유항, 몰약 대신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요?

1. 사목회 상임위원회: 10일 후 8시
2. 여성 제48차 꾸르실료 강습회: 12일~15일 김윤자(수산나)
입금자(도로테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 방문: 10일 전 9시 13-3, 12일 전 9시 13-4,
13일 전 9시 14-1 후 2시 14-2
4. 회의: ①꾸리아-오늘 후 2시30분 ②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③청년성가대-오늘 저녁미사 후 ④빈첸시오-11일 어머니미사 후
⑤임마누엘-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⑥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⑦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5. 성소 후원의 날: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매 미사 전후 회비 납부
6. 각 세대별 사무실 면접의 날: 9일(1구역-5구역), 10일(6구역-11구역), 11일(12구역-17구역), 사목회 임원 수고바람.
7. 전입을 환영합니다:
코오롱APT 이양너(로사리아) 8/1601 ☎225-5982
남한식(나탈리아) 3/502 ☎225-5909
김중숙(로사) 5/702 ☎225-6392
평화주공 전전남(율리안나) 301/1311 ☎82-8747